

닭

한間鷄舍 그넘어 蒼空이 깃들어
自由의 鄉土를 닛(忘)은 닭들이
시들은 生活을 주잘대고,
生産의 苦勞를 부르지졌다.

陰酸한鷄舍에서 쏘려나온
外來種 레구홍,
學園에서 새무리가 밀려나오는
三月의 맑은 午後도 있다

닭들은 녹아드는 두엄을파기에
雅淡한 두다리가 奔走하고
굶주렸든 주두리가 바즈런하다.
두눈이 붉게 여물도록——

一九三六、 봄

닭

한 간 계사 그 너머 창공이 깃들어
자유의 향토를 잊은 닭들이
시들은 생활을 주잘대고,
생산의 고로를 부르짖었다.

음산한 계사에서 쏘려 나온
외래종 레그혼,
학원에서 새 무리가 밀려나오는
삼월의 맑은 오후도 있다.

닭들은 녹아드는 두엄을 파기에
아담한 두 다리가 분주하고
굶주렸던 주두리가 바지런하다.
두 눈이 붉게 여물도록——

1936. 봄